

평창군, 저소득층 대상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 대상자 모집

평창군은 근로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자산 형성 지원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해 적립해 주는 제도로, 안정적인 자립과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희망 저축 계좌 I 은 근로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을 매칭 지원한다. 만기 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저축 계좌 II는 근로 중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을 단계적으로 매칭해 지원한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근로 중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15-39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 저축 계좌 II와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3년 만기 후 자립 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모집 일정은 희망 저축 계좌 I 은 4차(3월 3-13일, 6월 1-15일, 9월 1-14일, 11월 2-16일), 희망 저축 계좌 II는 3차(2월 2-24일, 7월 1-27일, 10월 1-26일) 진행되며,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5월 4일부터 20일까지 1회 모집한다.

동해시, 51억 원 투입 '2026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추진

동해시가 올해 5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자립 역량 강화와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6년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청년공간·인프라 조성 ▲창업·고용 지원 ▲취업 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거버넌스 활성화 등 5대 분야, 총 1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국·도·시비를 함께 투입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동해시의 고용률은 2023년도 67.4%에서 2024년도 68.9%로 1.5%p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 및 일자리 정책을 한층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활동 거점마련이다.

동해시는 총 27억원을 들여 목호진동 일원에 연면적 645㎡ 규모의 '청년도담센터'를 조성하여 청년창업과 교육, 교류를 위한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창업 및 고용 지원 분야에도 약 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청년 요식업 창업자 육성 사업'과 함께 '청년채용 고용장려금',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등을 병행해 청년 창업 초기단계의 안정적 진입과 고용 확대를 도모한다.

두 번째 생중계 업무보고... "도민공감 행정에 최선 다할 것"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과 강원특별법, 안전·문화·복지·관광 등 점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두 번째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안전·복지·문화·관광·건설·강원 특별법 분야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9일 열린 경제·산업 분야 업무보고에 이어, 도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했으며, TV 방송을 통해서도 동시 중계해 도민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였다.

주요 보고 내용으로는 재난 대응, 강원특별법 개정 및 특례 발굴, 문화·예술·스포츠 지원, 복지·의료서비스 확대, SOC 확충,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실국장의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열린 회의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도정 방향인 도민공감 행정을 강조한 데 따라, 이번 보고에서는 실·국장들이 행정 용어 사용을 줄이고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도민 안전과 관련된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편의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 편의점 화재취약점을 비롯해, 도내 1,719개 한파취약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도내 겨울철 축제의 안전관리 상황도 살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해 김진태 지사는 "타당한 이유 없이 강원특별법이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여겨지며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도내 어르신들의 디지털 생활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경로당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매니저 고용방안 등 현장 운영의 보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강원육아수당을 포함해 도에서 양육 지원에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생활 밀착형 홍보 방안에도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춘천시립미술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간 100억 원 규모를 앞둔 문화예술인 창작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변별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적기 준공 추진 상황과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 주요 관광 현안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됐다.

SOC 분야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발표를 앞둔 삼척·강릉 고속철도 추진 동향 등을 확인하고, 그간 민선 8기 예타 통과 7건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진태 지사는 "도민이 공감해야 진정한 행정"이라며, "앞으로 도민공감 행정으로 도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원주시, 언제나 안전한 물 환경 기반 확립

원주시는 지난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물 환경 기반을 확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기초 상수도 사업 분야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기업 경영 역량과 운영 효율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원주시 먹는물 검사소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2025년 정도관리 평가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유효한 정도관리 검증서를 공식 획득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먹는물 검사기관으로서 수질분석 분야의 독보적 공신력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다.

아울러 먹는물 기준 59개 전 항목에서 정수장 및 광역상수도 공급 수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결과를 매일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도물 안전성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장기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기반도 대폭 확충했다. 중앙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수도 분야 18건, 총 1,517억 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상수도 분야에서는 노후관망 정비사업 등 2건이 2026년 국·도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29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원주시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한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하수도 분야 핵심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했다. 공공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통해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00톤에서 140톤으로 확대해 전 지역 슬러지의 안정적 인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문막읍 취빙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준공으로 삼강 유역 수질 개선과 농촌지역 생활환경 향상도 기대된다.

김민석 기자

춘천시, 시로 행정 패러다임 전환 가속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AI기술을 행정 전격 도입, 행정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야간·휴일 민원 응대하는 'AI당직보 시범운영'과 함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I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선다.

춘천시는 오는 4월부터 'AI 당직보' 시범 운영을 본격 실시한다. 해당 기업의 기술 검증에 위한 무상 지원 방식이다. 3월까지 보안성 검토와 민원 응대 시나리오 사전학습을 마치고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해 개선 사항과 도입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며 당직 인력 축소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AI 당직보'는 기존의 ARS(자동응답 시스템)와 달리 생성형 AI 기반의 음성 보트 시스템이다.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AI가 실시간으로 문맥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대화형 응답을 제공한다. 최대 10회선의 민원을 동시에 처리해 시민들의 통화 대기시간을 줄인다.

주정차, 동물 사체 처리 등 즉시 처리 가능한 단순 민원의 경우 AI가 민원 유형을 분류해 해당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한다. 긴급 민원이나 당직자 연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AI가 즉시 당직자에게 전화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들의 AI 활용 역량 교육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기초적인 AI 이해부터 생성형 AI 실무 활용, 데이터·보안·윤리 교육까지 포함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AI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시가 예측한 2026년 강원 관광 지형도... 핵심 거점은 '강릉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및 지자체 정책 분석 결과, 강릉시가 도내 관광 성과 견인할 것으로 예측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데이터 분석 결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관광 산업에서 가장 압도적인 성과를 낼 도시는 '강릉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관광 빅데이터, 강원특별자치도의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추진 전략, 그리고 각 지자체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AI가 통합 분석하여 도출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AI 분석에 따르면 강릉시는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1박 이상 체류 비중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통된 동해선 철도의 영향으로 그간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관광객층이 영남권까지 확대되며, 2026년 한 해 동안 약 4,000만 명의 관광객이 강릉을 찾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강릉시는 올해를 '글로벌 관광 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강릉 방문의 해'를 공식 선포했다. 시는 이를 통해 약 28조 원 규모의 직접 관광소비 효과와 10만여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족현 전통 뱃놀이, 경포 달빛아트쇼 등 야간 및 체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여 시간소비형 인프라를 확충하며 당일치기 위주의 관광 구조를 개선한다. 또한,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대회 및 ITS 세계총회 유치 준비와 연계하여 해외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K-컬처 마케팅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

AI는 2026년 관광 트렌드로 '워크케이션(Workation)'의 정착과 '모컬 브랜드 소비'의 심화를 꼽았다. 강릉은 이미 구축된 워크케이션 센터와 강릉 커피로 대표되는 강력한 로컬 콘텐츠를 보

유하고 있어, 단순 방문객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에서도 타 시군 대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춘천은 호수 관광과 수도권 배후 수요에서, 속초는 고밀도 미식 관광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관광 소비액 규모와 정책적 확장성 면에서는 강릉이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 관계자는 "AI 분석 결과 2026년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강릉시의 공격적인 체류형 관광 정책과 인프라 개선이 데이터와 결합될 때 강원도 전체의 관광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영월군,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상권 활기

영월군이 전지훈련 선수단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4년 차를 맞아, 실질적인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해 잠재된 지역상권 회복에 적극 나선다.

영월군은 영월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각종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개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으며, 최근 3년간 약 130여 개 대회에 4만 8,700여 명이 참가해 약 66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군은 2023년부터 지역을 방문하여 3일 이상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을 대상으로 숙박비 및 식비(간식비 포함) 사용액의 15%(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전지훈련 선수단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씨름·배드민턴·테니스·야구·탁구·육상 등 6개 종목 선수단 1,322명에게 총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약 4억 9천 6백만 원의 지역 소비 효과를 거뒀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올해부터는 체류 일수 기준의 체류비 지급으로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전지훈련 전 인센티브의 70%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